박민기 인터뷰

소감: 떨떠름하다. 뽑힐지 몰랐다. 나를 믿고 투표해주신 10(만)명의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국민들에게 한마디: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.

어쩌다가 팔씨름 1위가 되었는가: 인스턴트 X, 철저한 식단 관리, 충분한 프로틴 섭취와 남자친구 권태홍이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다.
